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⑪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1819년 왕립 미술관서 출발…스페인 미술의 寶庫

스페인 3대 거장 작품 최다
작년 5년 공사 끝 증축 완료
강연·콘서트 부대행사 다양

마드리드=정상필 EU특파원

뜨거운 태양 같은 정열을 가진 반도의 나라 스페인은 잦은 외침과 내란 등으로 우리나라와도 자주 비교된 나라다. 스페인 미술의 대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국립 프라도 미술관(Museo Nacional del Prado)에 그 해답이 있다.

스페인 미술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엘 그레코(El Greco·1541~1614),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1599~1660), 고야(Francisco de Goya·1746~1828)의 작품은 세계 다른 어느 미술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셋 모두 궁정화가였고, 프라도 미술관의 시작이 왕립 미술관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프라도 미술관 내에서 이들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해 사실상 이들 셋을 위한 미술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프라도 미술관은 1785년 카를로스 3세에 의해 자연사박물관 용도로 지어졌다. 그러나 페르난도 7세는 회화와 조각 등 왕가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왕립 미술관을 개관했다. 1819년 11월 대중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이후 프라도 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관 당시 소장품은 스페인 회화와 스페인 외 유럽지역의 회화 등 1천500여점이었다. 특히 카를로스 5세 시절 좋은 작품이 많이 유입됐으며, 이후로도 왕가의 미술품 소장에 대한 노력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수집한 작품 중 대표작은 엘 그레코의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고야의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등이 있다. 또 1872년과 1971년 각각 폐관한 트리니다드 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의 소장품이 프라도 미술관으로 옮겨지면서 소장품 규모가 커졌다.

현재 프라도 미술관 소장품 수는 회화 7천600점을 비롯한 조각품 1천점, 판화 2천400점, 데생 6천300점 등이며 이 중 1천여점이 4개 층 100여개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고, 3천100점은 다른 미술관이나 기관 등에 대여 중이다. 소장품의 제작 연도는 대개 로마네스크 시절인 10세기 전후에서 19세기까지다. 스페인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카라바조 등 이태리 화가, 루벤스 등 플랑드르 화가, 프랑스 화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다.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출신 화가들의 작품 4천600여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이들의 다른 작품들을 소장하기 위해 기증을 받거나 사들이는 등의 노력을 지금도 아끼지 않는다. 지난 1993년과 2001년에 엘 그레코의 '신화', '이집트로의 비행' 등 두 작품이, 2000년에 고야의 '친촌 백작부인'이, 2003년에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발사의 초상화'가 프라도 미술관 소장고에 새롭게 편입된 것이 좋은 예다.

프라도 미술관은 지난해 스페인 내 미술관 최대 규모의 증축을 마쳤다. 1만7천㎡의 면적에 유명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의 설계로 5년여의 공사 끝에 개장한 증축건물은 1억5천200만유로(약 2천700억원)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 이 증축공사로 1천400㎡의 전시공간을 확보했으며, 기획전시가 주로 열리고 있다. 증축 공간에는 전시공간 외에 414석 규모의 오디토리엄, 컨페런스홀 등이 포함돼 있다. 프라도 미술관 관계자는 "증축으로 미술관이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전시공간 부족으로 총 소장품의 10% 남짓 밖에 전시하지 못하고 있는 미술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프라도 미술관 프로그램의 특징은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스페인 화가 호아킨 소로야(Joaquin Sorolla·1863~1923) 특별전에서는 그의 작품세계와 삶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10차례 이상 열렸으며, 콘서트도 3차례 계획됐다. 그의 삶을 주제로 하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테마 콘서트 등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프라도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는 266만명으로 파리 오르세 미술관(316만명), 도쿄 국립박물관(311만명)에 이어 10위에 링크됐다. /camus@kwangju.co.kr

프라도 미술관 전경. 스페인 최대 미술관인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들의 작품을 사들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메인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나폴레옹 침략 저항·아픔 화폭에…국민 사랑 한 몸에 받는 민족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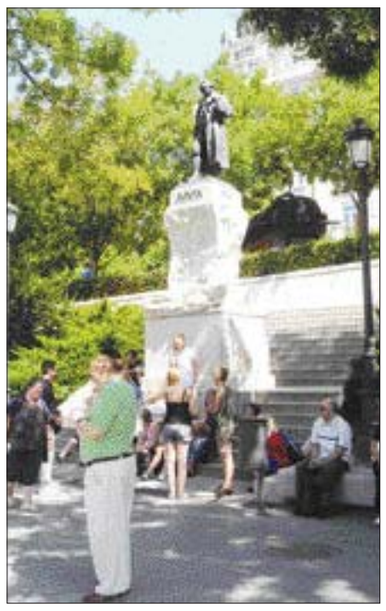
■ 고야와 스페인 미술

스페인 미술의 3대 거장 중에서도 고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대표 미술관인 국립 프라도 미술관 앞마당에 서 있는 고야의 동상〈사진〉이 스페인 내 그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고야가 스페인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 화가여서가 아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한 침략 전쟁의 피해자 입장에서 겪은 민족적 아픔을 화폭에 옮겨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궁정 수석화가였던 그의 화풍은 1800년을 전후해 바뀌는데 이전 시기에는 왕을 비롯한 가족, 측근들의 초상화에, 이후 시기에는 현실성이 돋보이는 인물화에 주로 천착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옷을 벗은 마하', '옷을 입은 마하' 등이 유명하다.

특히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 때 프랑스군에 저항하다 무참하게 살해되는 시민들을 그린 '1808년 5월3일'은 그의 대표작이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 끝나고 스페인이 해방된 해인 1814년 페르난도 7세가 왕위에 복귀한 뒤 궁정으로 돌아와 그린 그림이다.

'1808년 5월3일'은 저항하는 시민들과 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 총에 맞고 쓰러져 빨간 피를 흘리는 시민들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이후 마네와 피카소 등의 그림에 영향을 줬다.

그의 작품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사랑은 왕의 총애를 받는 궁정화가가 그린 민중화라는 점에 있다. 그는 '1808년 5월3일' 외에 전쟁의 참상을 표현한 연작판화 등을 제작했다. 그의 유화와 데생 등 대부분의 작품 500여점이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